

성격 유형 및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연구

염인경·김미숙[†]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Study of Total Coordination as Determined by Personality and Appearance-Related Characteristics

In-Kyung Yeom and Mi-Sook Kim[†]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 Hee University
(2004. 9. 10. 접수 : 2004. 11. 1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otal coordination as determined by personality, appearance-related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from December 18, 2003 to January 13, 2004 from 650 women living in Seoul in the age range of 20~35; 500 were used for the data analysis.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analysis, ANOVA, descriptive statistics, cluster analysis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ere used.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otal coordination behaviors among the groups divided by personality and appearance-related characteristics. Those who had the independent extrovert personality, egg-shaped face or white skin color were most positive with regards to the extent and behaviors of the total coordination.

Key words: appearance-related characteristics(외모관련특성), personality(성격유형), total coordination(토탈 코디네이션).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자아가 발달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의복이나 개인의 외모는 자신을 알리고 홍보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이게 되어 현대 여성들은 단순히 의복을 착용하고 화장을 하며 머리 모양을 결정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장소, 시간, 상황에 맞는 의복,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을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즉 토탈 코디

네이션 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토탈 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는 의복, 메이크업, 헤어에 대한 각각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의복, 메이크업, 헤어, 액세서리 등의 토탈 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3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개인의 외모관리 행동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성격 유형 및 토탈 코디네이션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이는

[†] 교신저자 E-mail : mskim@khu.ac.kr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코디네이션 행동 및 코디네이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외모 관련 특성으로는 얼굴형과 피부색이 선정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토탈 코디네이션에 대해 종합적이고 다양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한 의복, 메이크업, 헤어, 액세서리의 토탈 코디네이션에 대한 소비자 행동의 연구가 미미한 상태에서 성격 유형 및 얼굴형, 피부색의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 행동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 및 의류 관련 산업에서 마케팅 전략 수립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성격

1) 성격의 개념

성격을 나타내는 *personality*라는 용어는 회랍어의 *persona*로부터 유래되었는데 본래 이 말은 고대 회랍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근대 시대에는 배우의 역할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다¹⁾. 그러나 현대에는 성격의 구성이나 발달에 대한 견해의 차이때문에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Allport²⁾는 '한 개인의 진짜 모습 즉, 특징적 행동과 감추어진 행동을 결정하며 한 개인을 다른 개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별지어주는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징'으로 정의하였고, Pervin은 '개인이 상황에 대해 일관성 있는 반응양식을 보이는 특성이며 상황에 따라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³⁾. 이러한 여러 가지 상이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성격은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특징적으로 일관되게 전개하는 사고양식과 행동양식으로써 환경에 대한 적응방식 및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격 유형 분류와 성격 유형에 따른 의복 관련 행동

성격 유형은 다양한 성격 중에서 전형적인 성격을 설정하고 이것으로 개인의 다양한 성격을 분류한 것으로써 분류방법과 그에 따른 성격 유형이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성격 유형과 의복 관련 소비자 행동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MBTI나 Eysenk의 EPQ를 사용하거나 그 외에 김기석⁴⁾, 정원식⁵⁾ 등의 성격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성격 유형을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스타일, 의복색상, 의복이미지 등을 살펴본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먼저 성격 유형과 선호 의복 스타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Kahng⁶⁾은 한국 여대생 3, 4학년층을 대상으로 성격을 외향성과 내향성으로 나누었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혜원⁷⁾의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을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나누었으며, 외향적인 사람은 주종성과 유행에 관심이 많게 나타나, 외부 세계와 다른 사람을 중요시하고 변화에 적응하기 쉬운, 소위 사교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의복에서도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맞추고 새로운 변화를 시대의 요구로서 쉽게 받아들여려고 한다고 하였다.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한 홍선옥⁸⁾의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을 내향성-외향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는데, 사회적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사교적이며 활동적인 성격으로 타인과 다른 독특한 의복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고자 하며 의복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성취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이훈구,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1999), pp. 18-19.

2) G. W. Allport,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1961), p. 198.

3) 김 선, 박보배, 박예선, 임선민, 임혜숙, *심리학의 이해* (서울: 집문당, 1996), pp. 226-227.

4) 김기석, *일반 성격 검사: 중·고·대학생, 일반용*,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1980).

5) 정원식, *자아개념 검사 요강*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6) H. Kahng,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1971).

7) 강혜원,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1974), pp. 349-376.

8) 홍선옥, "성인 남자의 의복행동과 사회적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성격 유형과 선호하는 의복 색상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나수임 · 한명숙⁹⁾은 활동성, 안정성, 사회성으로 성격 특성을 분류하였고, 복식을 선호색과 혐오색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여고생은 고명도 색상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사회성이 클수록 밝은 색을 선호하고 어두운 색을 싫어하였다. 박화순¹⁰⁾은 성격을 내성적, 성취감, 공격성, 보수성으로 구분하여 의복의 색상, 명도, 채도에 대해서 연구하였고, 남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경숙¹¹⁾의 연구에서는 외향적 성격에 따라 외모만족도, 선호 색상을 연구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초록과 보라색을 선호하였고 여학생은 빨강, 남색, 분홍색을 선호하였으며, 성격에서 외향성이 높을수록 빨간색을 선호하였다. 빨간색과 같이 눈에 띄는 색상에 대한 선호도는 성별 및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Alschuler & Huttwich¹²⁾는 한색 및 난색과 성격 유형간의 관계 연구에서 난색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세계에 대하여 흥미와 욕구를 가지고 있고 민감하며 개방적인 경향이 있고 사회 환경에 순응하며 객관적 세계에 중점을 둔다고 하였다. 한색 계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외부 세계와 격리되어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보이고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며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감정이 차고 소극적이며 주관세계에 중점을 두는 성격특성을 나타내었다.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인자¹³⁾의 연구에서 의복색이 따뜻하고 밝은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행동적이고 인정이 많으며 실천적인데 비해, 어둡고 탁한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사색적이며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사려성이 높다고 하였다. Birren¹⁴⁾은 성격 유형을 내향적-외향적으로 분류

하여 선호 색상을 조사하였는데, 찬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내향적이고 따뜻한 색을 선호하는 사람은 외향적이라고 밝혔고, Compton¹⁵⁾은 사회성을 기준으로 의복 선호 색상을 연구하였는데,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어둡고 진한 색을 좋아하는 반면, 사회성이 낮은 사람은 옅은 색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성격 유형과 선호 의복 이미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Sweat & Zentner¹⁶⁾는 성격 유형을 MBTI를 이용하여 감각-직관, 사고-감정으로 분류하였고 성격 유형별 설명의 기준으로 의복이미지를 사용하였는데, 직관형의 성격 유형의 경우, 접근하기 어렵고 비일상적이고 대담한 '드라마틱' 스타일의 의복을 가장 세련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성격 유형별 선호하는 의복이미지와 의복구매행동을 연구한 오현정¹⁷⁾의 연구에서는 성격 유형을 MBTI를 이용하여 외향-내향, 감각-직관, 사고-감정, 판단-인식으로 구분하였는데, 외향형이 내향형에 비하여 선호하는 의복 이미지는 캐주얼, 스포티, 젊음, 발달함, 서양적인 이미지였고, 내향형이 외향형에 비하여 선호하는 의복이미지는 단순한 이미지였다. 단순한 의복이미지는 편한 이미지로써 평범한 의복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이며, 캐주얼 스타일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감각형은 직관형에 비하여 여성적인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였고, 사고형은 감정형에 비하여 서양적인 이미지의 의복을 선호하였으나, 감정형이 사고형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의복이미지는 없었다. 판단형이 인식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선호하는 의복이미지는 우아하고 고상한 이미지였고 인식형은 강렬한 이미지를 선호하였다. 이미혜 · 이인자¹⁸⁾는 Eysenk의 성격검사(EPIQ)를 이용하여 성격을 강인성, 외향성, 정서성,

9) 나수임, 한명숙, "여고생의 복색선호와 성격특성과의 상관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권 1호 (1986), pp. 37-45.
 10) 박화순, "성격특성에 따른 색채의 속성별 의복색 선호도," *복식* 26권 (1995), pp. 87-100.
 11) 유경숙, "티셔츠색 선호, 외모 만족도와 외향성과의 관계," *복식* 28권 (1996), pp. 75-86.
 12) R. H. Alschuler and L. W. Huttwich, *Painting and Personalit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47).
 13) 이인자,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권 2호 (1976), pp. 785-799.
 14) F. Birren, *New horizons in color*, (N.Y: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cited by M. L. Rosencranz, 1955), *Clothing concept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N.Y: Macmillan Publishing Co. 1977), p. 34.
 15) N. H. Compton,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54 No. 1, (1962), pp. 191-195.
 16) S. J. Sweat and M. A. Zentner. *Attributions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The Psychology of Fashion*. (MA: Heath, Lexington Books, 1985), pp. 321-335.
 17) 오현정, "성격유형별 선호하는 의복이미지와 의복구매행동," *한국의류학회지* 25권 3호 (2001), pp. 606-616.
 18) 이미혜, 이인자, "성격차원이 선호 의복 상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3호 (1990), pp. 13-24.

허위성으로 구분하여 선호 이미지를 연구하였다. 성인 여성에 있어 성격차원 중 강인성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개성적인 이미지를 선호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낮게 선호하였으며, 외향성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담한 이미지와 노숙한 이미지를 선호하고 여성적인 이미지와 실용적인 이미지를 낮게 선호하였다. 정서적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서적 경향이 낮은 사람에 비하여 애매모호한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실용적인 이미지와 야한 이미지, 개방적인 이미지는 정서적 경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낮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성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에 비하여 복잡한 이미지와 고전적인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대담한 이미지와 부조화된 이미지의 선호도가 낮았다. 또한 성인 여성의 연령별 여성 기성복 선호 상표 이미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실용적인 이미지, 성숙한 이미지, 수수한 이미지, 침착한 이미지 등을 선호하였으며 개성적인 이미지, 딱딱한 이미지, 발랄한 이미지의 선호도는 낮았다. 미취업인 경우 학생이나 취업여성에 비하여 실용적인 이미지, 침착한 이미지를 선호하였고 학생은 미취업이나 취업 여성에 비하여 도회적인 이미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격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스타일, 의복색상, 의복이미지를 각기 따로 연구하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보다 종합적인 외모 관리 행동인 토털 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외모 관련 특성

개인의 종합적인 외모 관리 행동인 토털 코디네이션 행동은 성격 유형뿐 아니라 외모와 관련된 피부색과 얼굴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특히 피부색과 얼굴형은 의복색이나 얼굴형에 따라 적합한 의복 스타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1) 피부색과 코디네이션

피부색을 결정하는 색소로는 멜라닌 색소, 헤모글로빈 색소, 카로틴 색소가 있는데¹⁹⁾, 특히 피부의 빛깔은 주로 멜라닌(melanin)에 의해 결정된다. 멜라닌 색소는 무채색의 형태로 검정, 갈색, 회색, 흰색에서 갈색빛이나 회색빛 또는 찬 기운이 도는 흰색이 있으며 헤모글로빈은 빨간색과 북숭아색, 자주색을 띠게 하는 색소로 헤모글로빈이 많으면 붉은색을 띠고, 적으면 창백하다. 피부색은 어떤 빛을 띠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다. Dorr는 1928년에 피부색을 따뜻한 색과 찬색으로 나누었고 Iten은 인간의 얼굴과 일치하는 4가지의 계절색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Jackson은 Iten의 이론을 도입하여 인간의 이미지를 사계절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각 유형에 어울리는 의상과 화장색을 제안함으로써 활성화 시켰다²⁰⁾.

개인색채의 유형을 분류한 Mathis와 Connor²¹⁾의 연구에 의하면 피부가 황갈색이거나 아이보리색인 경우 따뜻한 유형으로, 피부가 보라와 장미빛이 도는 갈색인 경우 차가운 유형으로, 노란색 기운과 푸른색 기운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박화순²²⁾도 개인 색채 유형을 분류하였는데, 노란색 기운이 감도는 피부를 지닌 경우 따뜻한 형으로, 파란색 기운이 감도는 피부를 지닌 경우 차가운 형, 피부가 북숭아 빛을 띠는 경우 복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민아·김구자²³⁾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피부색은 YR계열, R계열, Y계열로 나타났고, 그 중 대부분이 YR계열이었다. 이흥규²⁴⁾는 우리나라 사람의 피부 색상은 6.5YR을 중심으로 5YR~7.5YR의 범위에, 명도는 6~8의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데 명도 7 이상은 하얀 피부, 6.5 정도는 보통 피부, 6.5 미만은 검은 피부라고 할 수 있으며, 색상 면에서는 5YR계의 사람은 적색 피부, 6.5YR의 사람은 보통 피부, 7.5YR의 사람은 황색 피

19) 光井武夫, 신 화장공학 (서울: 동화기술, 1993), p. 39.

20) 신향선, *Color Image Making* (서울: 도서출판 국제, 2003), pp. 63-67.

21) C. M. Mathis and H. V. Connor, *The Triumph of Individual Style*, Timeless Editions, pp. 113-153.

22) 박화순, "대학생들의 피부색과 머리카락 색에 따른 개인 색채 유형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5권 3호 (2001), pp. 516-524.

23) 이민아, 김구자, "한국 여성의 피부색 분류와 의상 선호색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호 (2002), pp. 133-143.

24) 이흥규, *컬러 이미지 사전* (서울: 조형사, 1994), pp. 56-57.

부로 차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피부색은 화장, 의복 등의 토털 코디네이션과 깊은 연관이 있다. Jackson은 봄 유형은 노르스름한 톤을 가진 옐로우베이지 계열의 피부색에 해당되고 중명도의 선명한 색이나 밝은 파스텔톤의 색상이 어울리며, 여름유형은 붉그스름한 톤의 로즈베이지계열의 피부색으로 청색이나 흰빛 톤의 탁한 중간색이 어울린다고 하였다. 가을 유형의 피부색은 노르스름한 톤을 가진 골든베이지 계열로 골드, 황색톤의 중, 저명도의 탁하고 자연스러운 색이 어울리며, 겨울 유형은 회고 푸르스름한 톤을 지닌 핑크베이지 계열의 피부색으로 파랑 톤을 가진 고, 저명도의 선명한 빨강, 자주, 청보라 등의 색상이 어울린다고 하였다²⁵⁾.

피부색을 따뜻한 형, 차가운 형, 검은 형 등으로 나누는 경우의 연구에서는 흰 피부색은 선명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상이 잘 어울린다고 하였고 피부가 붉은 빛을 띤 편인 경우에는 부드럽고 다소 진한 듯한 차가운 색의 파스텔톤이 잘 어울리며, 피부가 노란빛을 띠는 경우에는 옅은 분홍색, 하늘색, 색깔이 선명한 원색 옷이 잘 어울린다. 피부가 검은 편인 경우에는 순백색과 검정색이 잘 어울리고 레몬옐로, 청록색, 청보라, 군청색, 흰색, 와인색 등이 잘 어울린다.

2) 얼굴형과 코디네이션

얼굴형은 목, 어깨, 머리모양에 따라 달라져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둥근형, 역삼각형, 사각형, 타원형(달걀형), 긴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둥근형의 얼굴은 광대뼈의 폭이 이마와 턱보다 넓고, 역삼각형의 얼굴형은 이마와 광대뼈가 넓고 뾰족한 턱이 두드러지는 것이 특징이며, 사각형의 얼굴형은 이마, 광대뼈, 턱뼈가 동일한 폭으로 넓고 하관이 발달해 있다. '계란형'이라고도 하는 타원형은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균형이 잡혀 있으며, 긴형의 얼굴은 이마, 광대뼈, 턱이 거의 동일한 넓이이고 얼굴 길이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타원형을 들고 있으며 긴 목에 잘 다듬어진 어깨선과 조화되면 더욱 이상적이다.

둥근 얼굴은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도록 해야 하는데, V넥, 깊게 파인 U넥을 선택해서 얼굴을 길어 보이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헤어스타일을 만드실 때 윗부분에 볼륨을 주는 것이 좋다. 뾰족한 턱이 두드러지는 역삼각형의 얼굴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밑이 넓은 타원형 디자인으로 턱선을 넓게 보이도록 하며, 머리를 내려서 넓은 이마를 보완하고 숏 커트는 피한다. 사각형의 얼굴형은 V넥이나 U넥이 잘 어울리며 스탠드칼라나 부드러운 라인의 칼라로 각진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헤어스타일은 윗부분을 살린 스타일, 층이 진 컷트가 잘 어울린다. '계란형'이라고도 하는 타원형은 이상적인 얼굴형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데, 터틀넥, 보우트 넥, 물칼라 등 여러 가지 형이 모두 잘 어울린다. 긴 타원형의 얼굴형은 긴 얼굴이 인지되지 않게 부드럽게 보이도록 해야 한다. 완만한 곡선형의 니크라인이 잘 어울리며 얼굴 중앙 부위가 넓어 보이는 디자인이 좋고, 헤어스타일은 옆쪽으로 약간 볼륨을 준 세미 롱이나 앞머리를 내린 스타일이 좋다²⁶⁾.

이상과 같이 피부색이나 얼굴형에 따른 코디네이션 방법이 제안되어 있으나 피부색과 얼굴형에 따른 개인의 코디네이션 행동, 정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1) 성격에 따라 여성을 성격 유형 집단으로 분류한다.
- (2) 성격 유형 및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털 코디네이션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3) 성격 유형 및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털 코디네이션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20~35세의 여성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 수집을 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인 2003년 11월 3일부터 11월

25) 신향진, 앞 글, pp. 86-105, 127-137.

26) 오희선, 박화순,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패션 코디 (서울: 경춘사, 2002), pp. 192-197.

18일까지 100부의 설문지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예비조사에 사용한 설문 내용에서 성격에 대한 문항 중, 신뢰도가 낮은 2문항을 제외하였고, 토털 코디네이션 행동에 대한 문항 중에서 외출시 화장 정도, 선호 의복 색상에 대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토털 코디네이션 정도에 대한 문항을 일부 보완하였다. 그리하여 본 조사는 2003년 12월 18일부터 2004년 1월 13일까지 총 650명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500부를 최종 결과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 도구

본 연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설문지는 성격에 대한 문항, 외모 관련 특성에 대한 문항, 토털 코디네이션 정도에 관한 문항, 토털 코디네이션 행동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각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 적절하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성격에 대한 문항은 김기석²⁷⁾의 성격 측정 문항을 기본으로 하고 김주희²⁸⁾의 연구에서 사용한 Social style 성격 측정 문항을 참조하여 구성하였고, 외모 관련 특성에 대한 내용은 오희선 외²⁹⁾, 조진아 외³⁰⁾의 문헌을 참조하여 얼굴형, 피부색의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또한 이들 문헌을 참조하여 각 문항을 분류하였다. 토털 코디네이션 정도에 관한 문항은 오희선 외³¹⁾, 조진아 외³²⁾의 문헌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써 측정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여 높은 점수일수록 각 문항에 대한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토털 코디네이션 정도에 대한 일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값이 .86으로 대체로 안정적

이었다. 토털 코디네이션 행동에 대한 내용으로는 신수현³³⁾, 오희선 외³⁴⁾, 조진아 외³⁵⁾의 연구 및 문헌을 참조하여 즐겨 착용하는 의복스타일, 외출시의 화장 정도, 의복 선호 색상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11.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일원 분산분석, χ^2 -test를 실시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각 문항에 대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test를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분석

1. 성격에 따른 유형 분류

1) 성격에 따른 요인 분석

각 성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행하였다. 요인분석은 성격의 총 24문항에 대해 실시하였는데 요인 추출법으로 Principal components법을 사용하고 Eigenvalues가 1이상인 요인만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Varimax 회전방법을 선택하였다. 그 결과 총 6요인으로 구분되었다(표 1). 설명 변량 백분율이 18.15%인 요인 1은 성격이 조용하고 차분하며 부끄러움을 잘 느껴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쉽지는 않은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차분한 내향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요인 2는 11.79%의 설명 변량을 나타냈는데, 혼자서도 입을 잘 하고 실질적, 현실적이며 변화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제안도 잘 하였으므로 독립적 외향성이라고 명명하였다. 설명 변량이 9.84%인 요인 3은 마음이 따뜻하고 관대하여 주위

27) 김기석, 앞 글.

28) 김주희, "성격 유형과 직부 유효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9) 오희선, 박화순, 앞 글, pp. 53-266.

30) 조진아, 강근영, 이현주, 전연숙, 송승연, 토털 코디네이션 (서울: 훈민사, 2002), pp. 185-190.

31) 오희선, 박화순, 앞 글.

32) 조진아, 강근영, 이현주, 전연숙, 송승연, 앞 글.

33) 신수현,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4) 오희선, 박화순, 앞 글, pp. 53-266.

35) 조진아, 강근영, 이현주, 전연숙, 송승연, 앞 글.

〈표 1〉 성격의 요인 분석

요 인	분항내용	요인부하량	신뢰도
(요인1) 차분한 내향성	조용하다.	.797	.840
	차분하다.	.778	
	부끄러움을 잘 탄다.	.602	
	쾌활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 한다.	-.595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쉽다.	-.472	
	솔직하고 직선적이다.	-.447	
고유치(4.356) 설명변량 백분율(18.152) 누적변량 백분율(18.152)			
(요인2) 독립적 외향성	혼자서도 일을 잘 한다.	.713	.751
	실질적, 현실적이다.	.634	
	급진적이고 변화를 좋아한다.	.596	
	제안을 잘 한다.	.557	
	상상력이 풍부하다.	.504	
고유치(2.829) 설명변량 백분율(11.787) 누적변량 백분율(29.939)			
(요인3) 개방적 온화성	마음이 따뜻하다.	.743	.742
	관대하다.	.638	
	새로운 상황이나 도전하는 것을 좋아 한다.	.474	
	주위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462	
고유치(2.361) 설명변량 백분율(9.837) 누적변량 백분율(39.775)			
(요인4) 인내적 신중성	심사숙고한 뒤에야 계획하고 조정한다.	.795	.827
	끈기와 참음성이 있다.	.732	
	조심성이 많다.	.669	
고유치(1.466) 설명변량 백분율(6.109) 누적변량 백분율(45.885)			
(요인5) 보수적 의존성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	.738	.787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생각을 선호한다.	.635	
	주변사람에게 의지한다.	.564	
	타인의 지시나 충고를 잘 받아 들인다.	.544	
고유치(1.289) 설명변량 백분율(5.369) 누적변량 백분율(51.253)			
(요인6) 불안정한 예민성	쉽게 당황한다.	.799	.761
	잘 긴장하고 침착하지 못하다.	.748	
고유치(1.073) 설명변량 백분율(4.472) 누적변량 백분율(55.726)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이나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므로 개방적 온화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끈기와 참음성이 있고 조심성이 많아 심사숙고한 뒤에야 계획하고 조정하는 경향이 강했으므로 인내적 신중성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총 6.11%의 설명 변량을 나타내었다. 5.37%의 설명 변량 백분율을 나타내는

요인 5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생각을 선호하고 주변 사람에게 의지하며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타인의 지시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보수적 의존성이라고 명명하였고, 설명 변량 백분율이 4.47%인 요인 6은 쉽게 당황하고 잘 긴장하며 침착하지 못한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불안정한 예민성이라고 명명하였다.

2) 성격요인에 따른 군집 분석

성격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요인점수를 이용하여 군집 분석을 실행하였다. 군집의 수를 3~6개로 연구자가 임의로 지정하고 덴드로그램 결과와 집단 내 응답자 수와 분포 경향을 참조하여 본 결과 4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판단되어 4개의 집단으로 정하였다. 선정된 4개의 집단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군집간 요인점수 평균을 구하여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표 2). 선정된 4개의 집단 명칭은 집단별 요인 점수를 참조하여 집단 1은 조용하고 차분하며 부끄러움을 잘 느껴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가 쉽지 않은 성향인 차분한 내성성 요인이 가장 두드러지는 성향의 집단이기에 차분한 내향형으로, 집단 2는 독립적 외향성 요인과 인내적 신중성 요인에서 낮은 경향을 나타내 의존적 즉흥형으로, 집단 3은 쉽게 당황하고 잘 긴장하며 침착하지 못한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불안정한 예민형으로, 집단 4는 혼자서도 일을 잘 하고 실질적, 현실적이며 변화를 좋아해 독립적 외향형이라 명명하였다.

2. 성격 유형 및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

1) 성격 유형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

각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에 대해 성격유형이 다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의

복스타일에 맞추어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다'는 항목을 제외한 모든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에 대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전체적인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를 살펴보면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추어 신발을 신는다',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든다'에서 높은 정도를 나타냈고,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모자를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와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신글레스, 안경을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에서 낮은 정도를 나타냈다. 각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별로 살펴보면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신발을 신는다', '의복색상에 따라 아이세도, 립스틱 색상을 달리하여 화장한다', '의복 분위기 및 스타일에 따라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의 귀금속 액세서리를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스카프 및 목도리를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모자를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에서 독립적 외향형 성격의 경우 차분한 내향형, 의존적 즉흥형, 불안정한 예민형의 성격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든다'의 경우에는 불안정한 예민형과 독립적 외향형의 성격이 의존적 즉흥형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의복색상에 맞춰 양말(스타킹) 색상을 선택하여 착용한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헤어핀, 헤어밴드 등의 액세서리를 달리하여 선택, 착용한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신글레스, 안경을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에서는 독립

<표 2> 성격요인에 따른 군집 분석

	차분한 내향형 (n=231)	의존적 즉흥형 (n=131)	불안정한 예민형 (n=50)	독립적 외향형 (n=88)	F-Value
(요인 1) 차분한 내향성	.5523A	-.1681B	-.7460C	-.7757C	74.460***
(요인 2) 독립적 외향성	-.1547C	-.5832D	.5892B	.9396A	67.817***
(요인 3) 개방적 온화성	-.0111B	-.3739C	.4437A	.3337A	13.621***
(요인 4) 인내적 신중성	.3504A	-.5381B	-.8834C	.3832A	51.334***
(요인 5) 보수적 의존성	.3160A	-.2102B	.0550AB	-.5479C	20.660***
(요인 6) 불안정한 예민성	.1521B	-.3368C	.9151A	-.4179C	30.371***

*** $p < .001$.

ABCD :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적 외향형의 성격이 의존적 즉흥형의 성격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정도를 보였다.

즉, 토탈 코디네이션을 할 때 독립적 외향형의 성격을 지닌 경우 헤어스타일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경향을 보였고, 불안정한 예민형의 성격을 지닌 경우에는 가방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얼굴형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

각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에 대해 얼굴형이 다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든다', '의복스타일에 맞추어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스카프 및 목도리를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 '의복색상에 맞춰 양말(스타킹) 색상을 선택하여 착용한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헤어핀, 헤어밴드 등의 액세서리를 달리하여 선택, 착용한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선글래스, 안경을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에서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에 대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각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별로 살펴보면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든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스카프 및 목도리를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에서 달걀형의 얼굴이 역삼각/네모형의 얼굴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의복스타일에 맞추어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다'의 경우에는 얼굴형이 달걀형인 경우가 얼굴형이 긴 형인 경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의복색상에 맞춰 양말(스타킹)색상을 선택하여 착용한다'에서는 역삼각/네모형의 얼굴이 둥근형과 달걀형의 얼굴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정도를 보였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헤어핀, 헤어밴드 등의 액세서리를 달리하여 선택, 착용한다'의 경우에는 얼굴이 달걀형인 경우가 역삼각/네모형의 얼굴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선글래스, 안경을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의 경우에는 달걀형의 얼굴이 역삼각/네모형의 얼굴과 긴형의 얼굴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정도를 보였다.

즉, 얼굴이 달걀형인 경우 토탈 코디네이션을 할 때 가방, 헤어스타일, 스카프 및 목도리, 양말(스타킹) 색상, 헤어액세서리, 선글래스 등 전반적으로 토

탈 코디네이션 하고자 하였고, 얼굴이 둥근형인 경우 토탈 코디네이션시 양말(스타킹) 색상을 중요시 하였다.

3) 피부색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

각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에 대해 피부색이 다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든다'와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선글래스, 안경을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에 대해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3). 각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별로 살펴보면 '의복 색상 및 스타일에 맞추어 신발을 신는다', '의복스타일에 맞추어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다', '의복색상에 따라 아이세도, 립스틱 색상을 달리하여 화장한다', '의복 분위기 및 스타일에 따라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의 귀금속 액세서리를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스카프 및 목도리를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모자를 달리 선택하여 착용한다'에서 피부색이 흰 편인 경우가 피부색이 검은 편인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의복색상에 맞춰 양말(스타킹) 색상을 선택하여 착용한다'의 경우에는 흰 편인 피부색을 지닌 경우가 붉은 색을 띤 편인 피부색과 검은 편인 피부색을 지닌 경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의복색상 및 스타일에 따라 헤어핀, 헤어밴드 등의 액세서리를 달리하여 선택, 착용한다'에서는 피부색이 흰 편, 붉은 색을 띤 편, 노란 빛을 띤 편인 경우가 피부색이 검은 편인 경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정도를 보였다.

즉, 흰 피부를 지닌 경우, 토탈 코디네이션을 할 때 신발, 헤어스타일, 화장색상, 귀금속 액세서리, 스카프 및 목도리, 양말(스타킹) 색상, 헤어 액세서리 등 전반적으로 토탈 코디네이션 하고자 하였고, 피부가 붉은 색을 띠거나 노란빛을 띤 경우 토탈 코디네이션시 헤어 액세서리를 중요시 하였다.

3. 성격 유형 및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 행동

1) 즐겨 착용하는 의복스타일

〈표 3〉 성격 유형 및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털 코디네이션 정도

		토털 코디네이션 정도									
		외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신발을 신는다.	외부·신발의 색상, 스타일에 맞춰 가방을 든다.	외복 스타일에 맞춰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준다.	외복색상에 맞춰 이색도, 립스틱 색을 맞춘다.	외복 분위기에 맞춰 귀금속 액세서리를 착용한다.	외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스카프 및 목도리를 착용한다.	외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모자를 착용한다.	외복색상 및 스타일(말(스타킹)색상을 맞춘다.	외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헤어색을 칠한다.	외복색상 및 스타일에 맞춰 선글라스, 안경을 착용한다.
성격 유형	차분한 내향형 (n=116)	3.51 B	3.53 AB	2.93	3.07 B	3.20 B	3.28 B	2.80 B	3.44 AB	3.26 AB	2.72 AB
	의존적 즉흥형 (n=187)	3.44 B	3.34 B	2.83	3.06 B	3.05 B	3.13 B	2.73 B	3.27 B	2.99 B	2.59 B
	불안정한 예비형 (n=118)	3.55 B	3.58 A	2.86	3.09 B	3.27 B	3.31 B	2.69 B	3.36 AB	3.25 AB	2.64 AB
	독립적 외향형 (n=79)	3.84 A	3.66 A	3.06	3.41 A	3.54 A	3.61 A	3.29 A	3.59 A	3.35 A	2.87 A
	총평균	3.59	3.47	2.92	3.16	3.27	3.33	2.88	3.42	3.21	2.71
F-Value		4.020***	3.386*	1.249	2.327*	4.708***	3.738*	5.871***	2.332*	3.351**	1.679*
외 모 관 련 특 성	등근형 (n=164)	3.52	3.41 AB	2.90 AB	3.13	3.21	3.30 AB	2.71	3.43 A	3.18 AB	2.62 AB
	역삼각/네모형 (n=65)	3.40	3.31 B	2.85 AB	2.98	3.05	3.00 B	2.77	3.09 B	2.80 C	2.49 B
	달걀형 (n=218)	3.61	3.59 A	2.97 A	3.19	3.29	3.38 A	2.97	3.47 A	3.32 A	2.83 A
	긴형 (n=53)	3.53	3.53 AB	2.66 B	3.02	3.11	3.19 AB	2.64	3.23 AB	2.98 BC	2.45 B
	총평균	3.52	3.46	2.85	3.08	3.17	3.22	2.77	3.31	3.07	2.60
F-Value		1.074	2.458*	1.654*	.863	1.222	2.303*	2.291	3.367*	5.053**	3.743*
피 부 색	흰편 (n=164)	3.62 A	3.58	3.03 A	3.26 A	3.32 A	3.40 A	2.97 A	3.51 A	3.31 A	2.74
	붉은색을 띤 편 (n=107)	3.54 AB	3.42	2.83 AB	3.05 AB	3.16 AB	3.29 AB	2.84 AB	3.23 B	3.14 A	2.71
	노란빛을 띤 편 (n=178)	3.54 AB	3.49	2.89 AB	3.11 AB	3.23 AB	3.24 AB	2.74 AB	3.42 AB	3.19 A	2.62
	검은편 (n=51)	3.35 B	3.31	2.65 B	2.90 B	2.94 B	3.06 B	2.63 B	3.18 B	2.71 B	2.59
	총평균	3.51	3.45	2.85	3.08	3.16	3.25	2.80	3.34	3.09	2.67
F-Value		1.227*	1.493	2.499*	1.987*	1.931*	1.558*	1.847*	2.809*	4.691**	.565

* $p < .05$, ** $p < .01$, *** $p < .001$.

ABC : Duncan의 사후검증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을 서로 다른 문자로 표시.

(1) 성격유형에 따른 즐겨 착용하는 의복스타일

평소 즐겨 착용하는 의복의 스타일이 성격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 전체적으로 즐겨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을 살펴보면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을 가장 즐겨 착용하였고 클래식 스타일, 로맨틱/아방가르드/매니쉬 스타일, 엘레강스 스타일 순으로 나타났다. 성격유형별로 살펴보면 차분한 내향형이 즐겨 착용하는 의복은 클래식 스타일이었고 의존적 즉흥형의 성격에서는 클래식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을 평소에 즐겨 착용하였으며, 불안정한 예민형의 성격에서 즐겨 착용하는 의복은 엘레강스 스타일이었고 성격이 독립적 외향형인 경우에는 캐주얼 스타일과 로맨틱/아방가르드/매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평소에 즐겨 착용하였다.

(2) 얼굴형에 따른 즐겨 착용하는 의복스타일

평소 즐겨 착용하는 의복의 스타일이 얼굴형이

다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4). 얼굴형별로 살펴보면 둥근형의 얼굴에서는 클래식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착용하였고, 얼굴이 역삼각/네모형인 경우에는 캐주얼 스타일과 로맨틱/아방가르드/매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착용하였다. 달걀형 얼굴을 지닌 경우 즐겨 착용하는 의복은 엘레강스 스타일이었으며, 긴 형의 얼굴에서는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착용하였다.

2) 외출시 화장 정도

(1) 피부색에 따른 외출시 화장 정도

외출시의 화장 정도가 피부색이 다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5). 피부색별로 살펴보면 피부색이 흰 편인 경우에는 외출할 때 '기초화장'만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붉은색을 띤 편인 피부색을 지닌

〈표 4〉 성격 유형 및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즐겨 착용하는 의복 스타일

	성격유형				얼굴형				합계
	차분한 내향형	의존적 즉흥형	불안정한 예민형	독립적 외향형	둥근형	역삼각/ 네모형	달걀형	긴형	
클래식 스타일	35 26.3 30.2	52 39.1 27.8	34 25.6 28.8	12 9.0 15.2	49 36.8 29.9	16 12.0 24.6	52 39.1 23.9	16 12.0 30.2	133(명) 100.0(%) 26.6(%)
캐주얼 스타일	41 22.3 35.3	73 39.7 39.0	36 19.6 30.5	34 18.5 43.0	65 35.3 39.6	26 14.1 40.0	73 39.7 33.5	20 10.9 37.7	184(명) 100.0(%) 36.8(%)
엘레강스 스타일	20 22.7 17.2	28 31.8 15.0	26 29.5 22.0	14 15.9 17.7	26 29.5 15.9	6 6.8 9.2	50 56.8 22.9	6 6.8 11.3	88(명) 100.0(%) 17.6(%)
로맨틱/ 아방가르드/ 매니쉬스타일	20 21.0 17.2	34 35.8 18.2	22 23.1 18.8	19 20.0 24.1	24 25.3 14.6	17 17.9 26.2	43 45.3 19.7	11 11.6 20.8	95(명) 100.0(%) 19.0(%)
합계	116(명) 23.2(%) 100.0(%)	187(명) 37.4(%) 100.0(%)	118(명) 23.6(%) 100.0(%)	79(명) 15.8(%) 100.0(%)	164(명) 32.8(%) 100.0(%)	65(명) 13.0(%) 100.0(%)	218(명) 43.6(%) 100.0(%)	53(명) 10.6(%) 100.0(%)	500(명) 100.0(%) 100.0(%)
	$\chi^2 = 28.305^{**}$ df = 9				$\chi^2 = 13.963^*$ df = 9				

* $p < .05$, ** $p < .01$.

〈표 5〉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외출시 화장 정도

	피부색				합계
	흰편	붉은색을 띠는 편	노란빛을 띠는 편	검은편	
기초화장	39	13	37	5	94(명)
	41.5	13.8	39.4	5.3	100.0(%)
	23.8	12.1	20.8	9.8	18.8(%)
기초화장+파운데이션+ 파우더=바탕화장	18	19	19	8	64(명)
	28.1	29.7	29.7	12.5	100.0(%)
	11.0	17.8	10.7	15.7	12.8(%)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	45	32	49	26	152(명)
	29.6	21.1	32.2	17.1	100.0(%)
	27.4	29.9	27.5	51.0	30.4(%)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 아이섀도+마스카라	36	25	40	9	110(명)
	32.7	22.7	36.4	8.2	100.0(%)
	22.0	23.4	22.5	17.6	22.0(%)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 아이섀도+마스카라+ 아이라이너+치크	26	18	33	3	80(명)
	32.5	22.5	41.3	3.8	100.0(%)
	15.9	16.8	18.5	5.9	16.0(%)
합계	164(명)	107(명)	178(명)	51(명)	500(명)
	32.8(%)	21.4(%)	35.6(%)	1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 23.337* \quad df=12$$

* $p < .05$.

경우에는 '기초화장+파운데이션+파우더'의 '바탕화장' 정도로 외출할 때 화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피부가 노란빛을 띠는 편인 경우에는 외출시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아이라이너+치크'의 화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검은 편인 피부를 가진 경우에는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 정도의 화장을 외출할 때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선호의복색상

(1) 얼굴형에 따른 선호 의복 색상

선호하는 의복 색상이 얼굴형이 다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의복의 색상은 흰색, 회색, 검정색 등의 무채색 계통이 가장 높았고 베이지

계통, 파스텔 계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얼굴형 별로 살펴보면 둥근형의 얼굴을 지닌 경우, 의복색상으로 파스텔 계통과 무채색 계통을 선호하였고, 얼굴형이 역삼각/네모형인 경우에는 원색계통과 파스텔 계통의 의복을 선호하였으며, 달걀형과 긴형의 얼굴에서는 베이지 계통, 무채색 계통의 의복을 선호하였다.

(2) 피부색에 따른 선호 의복 색상

선호하는 의복의 색상이 피부색이 다른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6). 피부색별로 살펴보면 피부가 흰 편인 경우, 무채색 계통의 의복을 가장 선호하였고, 피부색이 붉은 색을 띠는 경우에 선호하는 의복의 색상은 파스텔 계통과 베이지 계통이었으며, 노란빛을 띠는 편인 피부를 지닌 경우와 검은 편인 피부색에서는 원색

〈표 6〉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선호 의복 색상

	얼굴형				피부색				합계
	등근형	역삼각/네모형	달걀형	긴형	흰 편	붉은색을 띤 편	노란빛을 띤 편	검은 편	
원색 계통	22	16	25	6	22	6	30	11	69(명)
	31.9	23.2	36.2	8.7	31.9	8.7	43.5	15.9	100.0(%)
	13.4	24.6	11.5	11.3	13.4	5.6	16.9	21.6	13.8(%)
파스텔 계통	36	21	40	6	29	32	34	8	103(명)
	35.0	20.4	38.8	5.8	28.2	31.1	33.0	7.8	100.0(%)
	22.0	32.3	18.3	11.3	17.7	29.9	19.1	15.7	20.6(%)
베이지 계통	35	12	58	17	40	29	40	13	122(명)
	28.7	9.8	47.5	13.9	32.8	23.8	32.8	10.7	100.0(%)
	21.3	18.5	26.6	32.1	24.4	27.1	22.5	25.5	24.4(%)
무채색 계통	71	16	95	24	73	40	74	19	206(명)
	34.5	7.8	46.1	11.7	35.4	19.4	35.9	9.2	100.0(%)
	43.3	24.6	43.6	45.3	44.5	37.4	41.6	37.3	41.2(%)
합계	164(명)	65(명)	218(명)	53(명)	164(명)	107(명)	178(명)	51(명)	500(명)
	32.8(%)	13.0(%)	43.6(%)	10.6(%)	32.8(%)	21.4(%)	35.6(%)	10.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2 = 22.154^{**}$ df = 9				$\chi^2 = 16.253^*$ df = 9					

* $p < .05$, ** $p < .01$.

계통의 의복을 선호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V. 결 론

본 연구는 20~35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격유형 및 얼굴형, 피부색의 외모관련특성에 따른 토털 코디네이션을 연구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격유형 분류를 위해 성격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차분한 내향성, 독립적 외향성, 개방적 온화성, 인내적 신중성, 보수적 의존성, 불안정한 예민성으로 분류하였고, 요인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차분한 내향형, 의존적 즉흥형, 불안정한 예민형, 독립적 외향형으로 분류되었다.
2. 성격유형에 따른 토털 코디네이션 행동에서 차분한 내성형의 성격은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착용하고 의존적 즉흥형의 성격인 경우에는 클래식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하며 불안정한 예민형의 성격에서 즐겨 착용하는 의복은 엘레강스 스타일이었다. 또한 성격이 독립적 외향형인 경우, 로맨틱/아방가르드/메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하며, 토털 코디네이션 정도에서도 다른 성격 유형에 비하여 높은 정도를 보여, 독립적 외향형이 토털 코디네이션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외모 관련 특성에 따른 토털 코디네이션에서 얼굴형별로 살펴보면 등근 얼굴형은 파스텔 계통과 무채색 계통의 클래식 스타일, 캐주얼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하였고, 코디네이션을 할 때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들고, 의복색상에 맞춰 앞말(스타킹)색상을 선택하여 착용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역삼각/네모형의 얼굴에서는 원색 계통과 파스텔 계통의 캐주얼 스타일과 로맨틱/아방가르드/메니쉬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하였고 코디네이션 시 의복 스타일에 맞추어 헤어 스타일에 변화를 주었다. 얼굴형이 달걀형인 경우 베이지 계

통과 무채색 계통의 엘레강스 스타일의 의복을 즐겨 착용하였으며 코디네이션을 할 때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들고, 의복 스타일에 맞추어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며, 스카프 및 목도리, 양말(스타킹)색상, 헤어핀, 헤어밴드 등의 액세서리, 선글래스, 안경을 착용하는 등 토탈 코디네이션에 가장 민감하였으며, 긴 얼굴형은 베이지 계통과 무채색 계통의 클래식 스타일의 의복을 선호하였으며 의복 및 신발의 색상, 스타일을 고려하여 가방을 선택하였다.

4. 외모관련특성에 따른 토탈 코디네이션에서 피부색별로 보면 흰 편인 피부색을 지닌 경우 무채색 계통의 의복을 선호하였고 코디네이션시 의복 색상 및 스타일에 맞추어 신발을 착용하고 헤어스타일, 화장의 색상, 귀금속 액세서리, 스카프, 모자, 양말(스타킹), 헤어액세서리에 변화를 주는 등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외출할 때 '기초화장'만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피부색이 붉은 색을 띤 편인 경우에는 '기초화장+파운데이션+파우더'의 '바탕화장' 정도로 외출할 때 화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파스텔 계통과 베이지 계통의 의복을 선호하였다. 피부색이 노란 빛을 띤 편인 경우에는 외출시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아이라이너+치크'의 화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흰색 계통의 의복을 선호하였으며, 피부색이 검은 편인 경우, 흰색 계통의 의복을 선호하였고 토탈 코디네이션에 가장 소극적이었으며, 외출할 때 '바탕화장+눈썹펜슬+립스틱' 정도의 화장을 하는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많은 소비자들이 외모관리에 있어 토탈 코디네이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토탈 코디네이션 행동 중 화장의 경우, 피부색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전반적인 코디네이션 행동은 얼굴형, 피부색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성격 유형이 독립적 외향형인 경우, 토탈 코디네이션 정도에 매우 적극적이어서 토탈 코디네이션에 관련된 마케팅 전략 수립시 매우 중요한

표적시장으로 나타났다. 외모적으로 가장 미인형으로 꼽히는 달걀형의 얼굴형을 지닌 경우와 흰 피부를 지닌 경우 토탈 코디네이션 행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개인의 장식욕구를 자극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의류업체, 화장품 및 미용업계에서는 제품 생산 및 서비스를 위한 전략 수립 및 마케팅, 판매전략 수립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소비자 만족 제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본 연구는 일부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 무리가 따를 수도 있다. 또한 화장 정도는 패션 트렌드에 따라서 항상 변하는 것은 아니나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점으로는 주거지역이나 사회계층으로 시장을 세분화하여 토탈 코디네이션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토탈 코디네이션은 TPO에 따라 달리 해야 하므로 상황별 토탈 코디네이션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강혜원 (1974). "대학생의 개성과 유행을 중심으로 한 의상행위와 성격특성과의 관계." 연세논총 11.
- 김기석 (1980). *일반 성격 검사: 중·고·대학생, 일반용*,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 김선, 박보배, 박애선, 임선빈, 임혜숙 (1996). *심리학의 이해*. 서울: 집문당.
- 김주희 (2003). "성격유형과 직무 유효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수임, 한명숙 (1986). "여고생의 복색선호와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8권 1호.
- 박화순 (1995). "성격특성에 따른 색채의 속성별의 복색 선호도." *복식* 26권 (2001). "대학생들의 피부색과 버리카락 색에 따른 개인 색채 유형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5권 3호.
- 신수현 (2003). "얼굴형과 메이크업 컬러에 관한 연구, -동·서양의 관상학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향선 (2003). *Color Image Making*. 서울: 도서출판 국제.
- 오현정 (2001). “성격유형별 선호하는 의복이미지와 의복구매행동.” *한국의류학회지* 25권 3호.
- 오희선, 박화순 (2000). *아름다운 여성을 위한 패션 코디*. 서울: 경춘사.
- 유경숙 (1996). “티셔츠색 선호, 외모 만족도와 외향성과의 관계.” *복식* 28권.
- 이미혜, 이인자 (1990). “성격차원이 선호 의복 상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 3호.
- 이만아, 김구자 (2002). “한국 여성의 피부색 분류와 의상 선호색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1호.
- 이인자 (1976). “성격과 의복디자인 선호간의 상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권 2호.
- 이훈구 (1999). *성격심리학*. 서울: 범문사.
- 이흥규 (1994). *칼라 이미지 사전*. 서울: 조형사.
- 정원식. *자아개념 검사 요강*. 서울: 코리안 테스트 센터.
- 조진아, 강근영, 이현주, 전연숙, 송승연 (2002). *토틸 코디네이션*. 서울: 훈민사.
- 홍선옥 (1983). “성인남자의 의복행동과 사회적 내향성-외향성 성격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光井武夫 (1993). *신 화장품학*. 서울: 동화기술.
- Allport, G. W. (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 Y: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Alschuler, R. H. and Huttwich, L. W. (1947). *Painting and Personality*.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Birren, F. (1955). *New horizons incolor*, N.Y: Reinhold Publishing Corporation, cited by Rosencranz, M. L. (1977). *Clothing concepts: A social psychological approach*. N.Y: Macmillan Publishing Co.
- Compton, N. H. (1962). “Personal attributes of color and design preferences in clothing fabrics.”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54, No. 1.
- Kahng, H. (1971). “Clothing interests and clothing aspirations associated with selected social-psychological factor for a group of college women in Korea,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Mathis, C. M. and Connor, H. V. (1994). *The Triumph of Individual Style*. Timeless Editions.
- Sweat, S. J. and Zentner, M. A. (1985). Attributions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The Psychology of Fashion*. (MA: Heath, Lexington Books.